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공평한 기회 제공하는 시드니의 행사 가이드 라인

문화·관광 - 인구 감소하는 소도시를 관광지로 리스타일링

산업·경제 - 사업자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다운타운 경제 살리기

사회·복지 - 고령사회 대비한 대만의 고령가구 물가지수

환경·안전 - 파리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u>미국</u>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u>캐나다</u>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u>케냐</u>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u>오스트레일리아</u>	
시드니	황현정

〈아시아〉	
<u>말레이시아</u>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u>싱가포르</u>	
싱가포르	이지은
<u>인도</u>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u>인도네시아</u>	
자카르타	박재현
<u>일본</u>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u>중국</u>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u>네덜란드</u>	
암스테르담	장한빛
<u>독일</u>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u>스페인</u>	
바르셀로나	진광선
<u>이탈리아</u>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u>프랑스</u>	
파리	김나래
	정연주

공평한 기회 제공하는 시드니의 행사 가이드라인

호주 시드니시 / 문화·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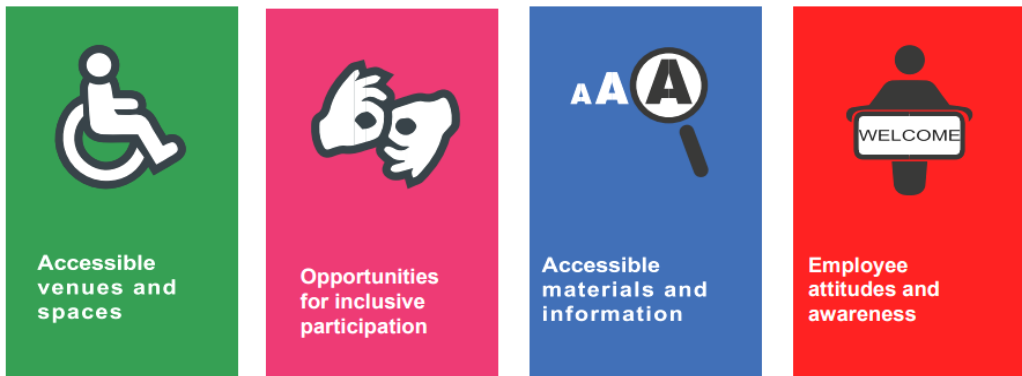
호주 시드니시는 도심에서 펼쳐지는 행사에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포괄적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공. 기존 지침에서 접근성 부문을 엄격한 호주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실제 모범사례와 장애인 참여자의 후기, 유용한 팁 등을 포함하여 업데이트함. 이를 통해 시드니시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유모차 동반 부모 등에게 다양한 사회·문화 행사를 즐기고 참여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포괄적 가이드라인 수립 개요

- 시드니시는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도시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의 필요성 인식
 - 호주관광산업에서 장애인의 관광 지출은 약 17% 비중
 - 접근성이 좋은 비즈니스는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큰 포용성과 고객 다양성 덕분에 최대 25%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장애인을 포함하여 노인, 일시적 신체장애인, 유모차를 동반하는 부모, 3대 이상의 단체로 이루어진 방문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조직 필요
- 기존 행사지침을 호주 표준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접근성을 높이는 행사지침으로 미세 조정하여 2023년 하반기에 개정안 발표
 - 장애인과 접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행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
 - 특히 실제 행사에 적용된 모범사례와 장애인 이용자들의 후기, 유용한 팁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다른 행사 주최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이 지침서는 시에서 주최하거나 시 보조금이 들어간 모든 행사와 축제에 적용
 - 소규모 커뮤니티 행사부터 여러 날 및 여러 장소에 걸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를 포함
 - 시드니 내에서 야외 행사 허가가 필요한 모든 행사 주최자에게도 제공

포괄적 가이드라인 구성

- 행사지침서는 포용적이고 접근하기 좋은 행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4가지 원칙과 온라인 행사를 포함한 5가지 영역으로 구성
 - 접근하기 쉬운 장소와 공간
 - 포용적 참여의 기회
 - 접근 가능한 자료와 정보
 - 직원 태도와 인식
 - 온라인 이벤트



[그림 1] 포괄적 행사 가이드라인의 4가지 원칙 (출처: City of Sydney)

- 각 영역에는 상세하고 꼼꼼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행사 모범사례와 장애인 이용자들의 후기 및 소감, 유용한 팁 등을 담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제시
- 지침서 마지막에는 행사 주최자들이 더 쉽게 행사를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제공

영역별 세부 내용

- (영역 1)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 제한적 이동성을 가진 사람, 아이 동반한 가족, 노인 등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실내 또는 야외
 - 턱이 없는 입구, 표준규격에 맞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연속적인 이동통로
 - 이동통로는 실내의 경우 계단이나 장애물이 없는 최소 너비 1m에 높이 2m의 통로, 실외는 최소 너비 1.2m에 높이 2m의 통로로 20m마다 1.8m 폭 공간 마련

- 접근이 쉬운 장애인 화장실, 성인 탈의실 등 필요
-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길 안내 표지판과 안내 지도 구비, 적절한 위치에 있는 주의 표지판 마련
- 이동 수단 주차, 대중교통 이용, 비상 출구 등에 관한 안내
- (영역 2) 포용적 참여와 경험의 기회: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행사
 - 장애 특징을 배려한 좌석 및 시청 구역을 마련하고 150좌석당 3개의 휠체어 좌석을 분산 배치
 -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 데스크(카운터 높이, 응대할 수 있는 직원 배치 등)와 다양한 방식의 소통창구 마련(스크린, 오디오, 수화 등)
 -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좌석, 휠체어 이용 가능한 테이블, 청취 보조 시스템(hearing loop) 설치 등
 - 자폐 스펙트럼 등 감각에 민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행사로서 조용한 공간, 감각 자극 공간, 감각 조정 공연, 감각 지도 등 제공
- (영역 3) 접근 가능한 자료와 정보: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은 행사에서 배제되거나 나쁜 일을 경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의 참여를 촉진
 - 대중교통, 주차, 화장실, 탈의실, 포용적 참여 기회, 예약 정보, 비상 상황 시 대처 등을 포함한 양질의 행사 정보를 웹사이트나 안내 책자에 게시
 - 마케팅 및 초대장에도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행사임을 언급하여 알림
- (영역 4) 직원 태도와 인식
 - 행사 직원, 자원봉사자, 보안 경비원 등에게 기본적인 정보(관람 장소, 화장실, 경사로, 출입구 등)와 장애인 지원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 교육
 - 포용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도록 하며,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에티켓에 관한 지침 제공
- (영역 5) 온라인 행사: 원격으로 진행되는 행사에서도 장애인 참여에 대한 접근과 포용을 고려
 - 화상회의나 웹 세미나 소프트웨어에 접근 가능한지, 웹 콘텐츠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부합한지 등을 확인하고, 참여자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도움 제공
 - 형식, 길이, 시간, 채팅 기능,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등 여러 방면에서 고려
 - 회의 또는 행사 사후 관리(자료 공유, 비디오 녹화, 대본, 피드백 등)

기대와 시사점

- 앞으로 시가 주최하거나 관여하는 모든 행사가 초기 단계부터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준비·조직됨으로써 포용적 행사가 정착되고 더 많은 장애인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평한 참여 기회를 얻을 것이라 기대
- 포괄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행사를 조직하고 장애인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행사 주최자가 더 포용적인 행사를 개최하도록 동기부여
 - 모든 시민이 공평한 기회를 얻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도시를 포용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길일뿐 아니라 행사 매출 등 비즈니스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길임
-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상세한 지침과 함께 실제 사례와 후기, 유용한 팁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도움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유모차를 타는 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고려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침

<https://news.cityofsydney.nsw.gov.au/announcements/our-guide-to-making-events-more-inclusive-and-accessible>

<https://disabilityinsider.com/2023/09/08/accessibility/sydney-unveils-guide-to-making-inclusive-and-accessible-events/>

<https://www.cityofsydney.nsw.gov.au/guides/inclusive-accessible-event-guidelines>

<https://www.austrade.gov.au/en/news-and-analysis/analysis/the-accessible-tourism-opportunity>

황 현 정 통신원, hj.hannah.hwang85@gmail.com

인구 감소하는 소도시를 관광지로 리스타일링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 문화·관광

토스카나주는 현재 가장 심각한 이슈인 소도시 인구 감소 문제를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함.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소도시 관광 협회’와 제휴하여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시작

배경과 목적

- 소도시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
 - 작은 마을의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문제는 이탈리아 전역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임.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문화적 인프라가 점차 줄어들고 결국 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
- 토스카나주는 소도시 인구 감소 문제를 지속 가능한 관광 접근법으로 해결하고자 함
 - 사라져 가는 소도시들을 관광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도착지로 탈바꿈시키는 도시 리스타일링(restyling) 기회로 삼음
 - 지역마다 고유한 전통과 라이프스타일이 명확한 이탈리아에서 소도시의 발전 여부는 국가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임
 -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 상업시설, 대중교통, 의료시설, 문화 서비스 등이 활발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소도시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는 시각
 - 지속 가능한 관광 접근법
 - 소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고유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광 접근법이라는 토스카나주의 관점
 - 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 가장 중요한 점
 - 작은 마을의 발전을 통해 소도시의 인구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토스카나주의 포부

주요 내용

-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관광 협회 ‘이탈리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을(I Borghi più Belli d’Italia)’ 협회와 협업
 - 토스카나주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도시를 선정하고 작은 마을의 발전을 돕는 관광 협회와 작은 마을 페스티벌 개최

- 이탈리아 전역에서 354개, 토스카나주에서 29개 소도시가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됨.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된 도시들의 시장과 관광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작은 마을의 발전을 논의하는 행사를 3일 동안 개최. 약 5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인 토스카나주의 루치냐노(Lucignano)에서 열림
- 다양한 소도시의 고유한 음식, 전통 등 관광지로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
-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세계 관광객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견을 나누고 소도시에 관한 관광 정책을 수립함
- 과거에는 논이 적었던 바닷가 마을, 산맥 마을 등 지리적 환경이 특별한 소도시에 관한 정책 및 발전 방안도 심층적으로 다룸
- 이탈리아 전역 약 300개의 소도시가 참여한 이 행사에서 작은 마을 발전에 토스카나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동의
-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
 - 2023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산업이 회복하는 시기로 갑자기 폭발한 관광 수요 때문에 무분별한 여행 상품이 쏟아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
 - 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동시에 여행객들에게 고유문화를 선사하는 관광 정책이 토스카나주의 최종 목표



[그림 1]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관광 협회와 협업한 작은마을 페스티벌

(출처: <https://borghipiubelliditalia.it/2023/09/11/xv-festival-nazionale-de-i-borghi-piu-belli-ditalia-8-9-10-settembre-2023/>)



[그림 2] 소도시 인구 소멸 문제를 관광 정책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

(출처: <https://borghipiubelliditalia.it/2023/09/11/xv-festival-nazionale-de-i-borghi-piu-belli-ditalia-8-9-10-settembre-2023/>)

- 스마트 워킹(smart-working) 도시로서 소도시의 매력
 - 팬데믹 이후 스마트 워킹이라 불리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인터넷 노마드가 증가하면서 소도시는 일하면서 동시에 여행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로 포지셔닝
 - 토스카나주는 소도시의 발전 기회에 공감하며 현재 다양한 소도시 지자체, 관광 스타트업과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 중

<https://www.toscana-notizie.it/web/toscana-notizie/-/festival-borghi-pi%C3%B9-belli-d-italia-a-lucignano--conferenza-stampa-marted%C3%AC-29%C2%A0>

<https://borghipiubelliditalia.it/2023/08/30/presentato-ufficialmente-il-xv-festival-dei-borghi-piu-belli-ditalia/>
<https://www.toscana-notizie.it/-/borghi-pi%C3%B9-belli-d-italia-giani-al-festival-di-lucignano-una-legge-per-i-borghi-della-toscana->

<https://www.toscana-notizie.it/-/borghi-pi%C3%B9-belli-d-italia-xv-festival-nazionale-a-lucignano.-giani-innovazione-e-nuovi-tessuti-sociali-anima-della-toscana->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사업자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다운타운 경제 살리기

미국 포틀랜드시 / 산업·경제

코로나19 이후 노숙자, 마약, 범죄율 증가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문제 지속. 포틀랜드시는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다운타운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이는 신규 경제 활성화 전략인 어드밴스 포틀랜드 및 도시기업구역 확대 등과 더불어 강력한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되리라 기대

배경

-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심각해진 다운타운 쇠퇴 문제에 대응 필요
 - 노숙자, 마약, 범죄율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 악화
 - 다운타운의 오피스 빌딩 가격 하락, 2023년 공실률 10%에서 20.3%까지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인구 감소
 - 도심 지역의 경제적 현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서 사업체 수, 고용자 수, 공실률, 유동 인구 등의 여건이 매우 열악해짐¹⁾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운타운 비즈니스 인센티브 크레딧 프로그램(Downtown Business Incentive(DBI) Credit Program)을 시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다운타운 활성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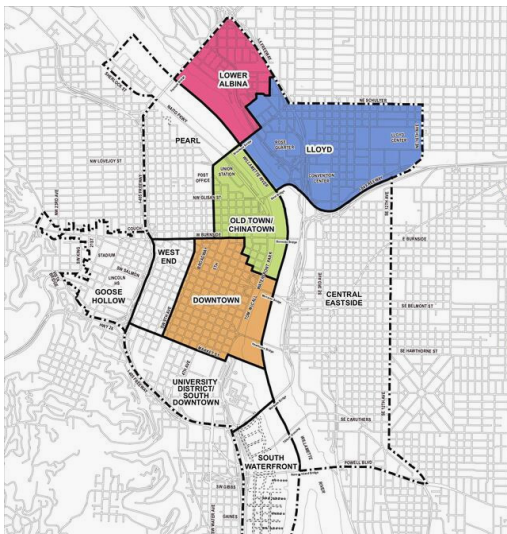
세부 내용

- 2023년 9월 14일 긴급조례 제정을 통해 세액공제 프로그램 시행
- 주요 목적은 다운타운의 상업 부동산 활성화와 공실률 감소, 유동인구 증가 등을 통해 도심 재활성화 유도
-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으로써 다양한 자격요건을 요구
 - 자격요건은 포틀랜드시 세입부서의 세금 계정에 등록 및 해당 과세연도까지 등록 준수를 마친 사업자
 - ① 2023/24 또는 2024/25 회계연도에 대상 지역²⁾ 내 신규 임대이거나 기존 임대 기간 연장으로 4년 이상 사업 유지한 사업자 ② 대상 지역 내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자

1) ECONorthwest, 2023. Economic & Market Conditions—Central City Subdistricts

2) 위의 연구 및 조례에서 정하는 4개 지역 - 다운타운, 올드타운/차이나타운, 로이드, 로어 알비나(Lower Albina)

- 정규 또는 기간제(근로 시간의 절반 이상) 근로자 수가 15인 이상인 사업자
- 해당 과세연도 내 청구 가능한 일회성 혜택으로, 최대 한도는 4년 동안 25만 달러로 제한
 - 기준 세액공제액은 사업자의 과세 대상 소득의 1% 또는 임대 계약에 포함된 건물 공간의 평방피트당 30달러
- 세액공제분은 각 연도의 세금 신고 시, 포틀랜드시에서 규정한 기준 사업면허세를 초과할 수 없고, 만약 초과하면 공제나 이월 불가
- 대상 기간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정 이율을 적용한 공제액을 지불해야 하며 이때 벌금이나 벌칙은 미적용
-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정된 3곳의 서비스 구역 중 다운타운 지역에 해당하는 다운타운 클린 앤 세이프(Downtown Clean & Safe) 구역에도 함께 적용되어 추가적인 활성화 효과를 기대([그림 1]의 주황색 구역과 [그림 2]의 녹색 구역)
 - 다운타운 클린 앤 세이프 구역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로 상업용 부동산 대상으로 더 향상된 공공행정 서비스(폐기물 처리, 교통 서비스, 상하수도, 치안 등)를 지원
 - 주로 소매업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의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



[그림 1] DBI 프로그램 대상 지역

(출처: portland.gov)



[그림 2] 도심지역 중 주요 서비스 구역

(출처: downtownportland.org)

평가

-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제적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가운데 강력한 지원 대책으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
 - 실질적인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기존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
 - 특히 지난 8월 신설된 다운타운 활성화 TF팀이 제시한 대책 중 대상 지역에 직접 적용되는 첫 사례로 앞으로 포틀랜드시의 경제 활성화 전략에 반영 예정

<https://www.portland.gov/council/documents/ordinance/passed/191451>

<https://www.portland.gov/policies/licensing-and-income-taxes/administration/lic-510-downtown-business-incentive-credit>

<https://www.portland.gov/policies/licensing-and-income-taxes/fees/lic-511-changes-amount-or-loss-downtown-business-incentive>

<https://www.portland.gov/revenue/business-tax/downtown-business-incentive-credit-program#toc-credit-requirements>

<https://www.kgw.com/article/money/business/portland-downtown-central-city-tax-break-business-incentive-ordinance/283-b367bb03-189b-4b34-89d3-e9eac3e0dc7c>

<https://news.theregistry.com/report-portlands-office-market-faced-challenges-and-opportunities-in-q3-2023/>

<https://www.portland.gov/omf/cleanandsafe>

<https://www.axios.com/local/portland/2023/12/01/portlands-new-downtown-business-tax-credit>

김현철 통신원, khcr4292@gmail.com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만의 고령가구 물가지수

대만 타이베이 외 / 사회·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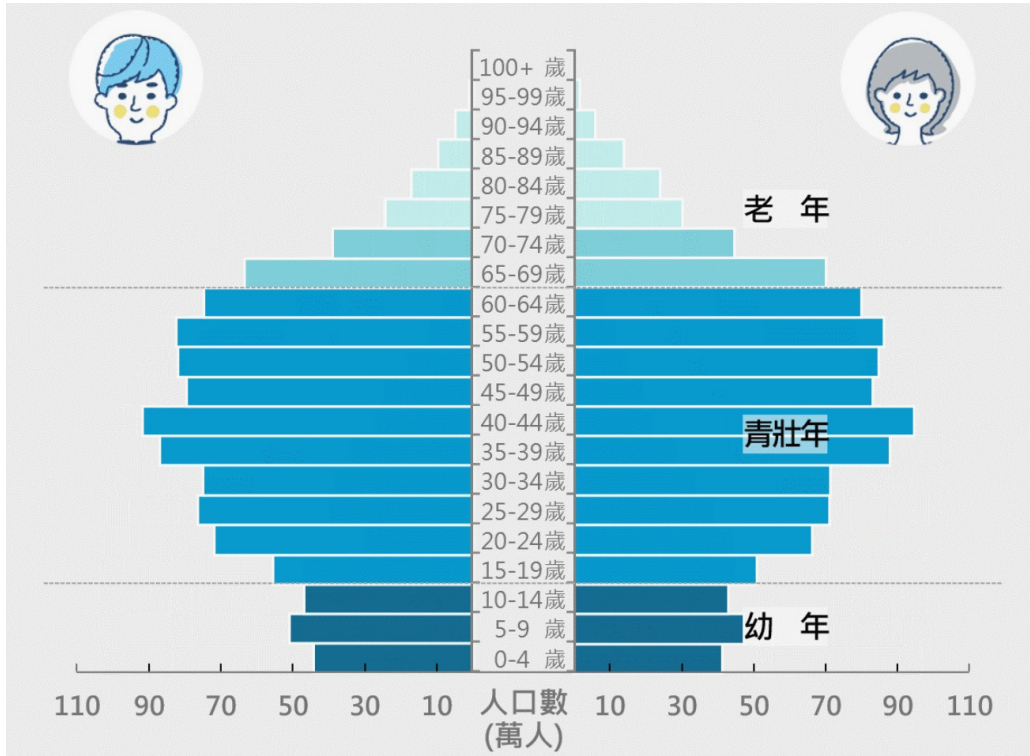
선진국 중 1인당 GDP가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만은 최근 10년 동안 급속한 고령화와 극도로 낮은 출생률로 몸살을 앓는 현실도 한국과 비슷함. 이에 대만 당국은 은퇴 계층과 노인가구가 평소 생활에서 물가의 압력을 얼마나 받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고령가구 물가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에 공식 발표함. 고령가구 물가지수를 통해 고령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 뚜렷이 드러남

‘고령가구 물가지수’ 발표 배경

- 올해 1월 5일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 한국의 통계청에 해당)는 2023년 대만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등을 발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고령가구(高齡家庭) 물가지수를 공식 발표
 - 주계총처는 은퇴 계층과 노인가구가 평소 생활에서 물가의 압력을 얼마나 받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해당 지수를 조사했음
 - 다른 주요 물가지수와 함께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고령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로, 65세 이상 부부 거주 가구, 85세 이상의 다른 노인과 같이 거주하는 3~4명의 가구, 65세 이상의 남자 혹은 여자가 혼자 사는 가구 등을 가리킴
- 대만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¹⁾인 선진국 중 한국과 유사하게 최근 10년 동안 급속한 고령화와 극도로 낮은 출생률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임
 - 2022년 8월 대만 국가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대만 인구추계 2022~2070》에 따르면, 2020년 대만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4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7.8%를 차지함
 - 고령가구 물가지수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대만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428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18%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약 4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1) 2022년 대만의 1인당 GDP는 3만 2,811달러로 한국의 3만 2,237달러보다 많았음

- 2023년 10월 대만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가 발표한 《출생 통보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대만의 신생아 수는 13만 9,110명으로 출생률은 0.92명을 기록함
- 대만 언론은 2023년의 출생률을 0.8명대로 예상함
-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한 해도 한국과 똑같은 2020년임
- 대만 국가발전위원회가 2070년 대만 전체 인구를 예측했는데,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출생률 호전 시 1,708만 명, 출생률 악화 시 1,502만 명으로 추정함



[그림] 2020년 대만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 (출처: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고령가구 물가지수에서 주목되는 지표

- 이번에 발표된 고령가구 물가지수를 통해 고령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높은 물가에 시달리는 추세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남
- 전체 가구의 물가지수는 ▶2019년 0.5%, ▶2020년 -0.2%, ▶2021년 1.9%, ▶2022년 2.9%, ▶2023년 2.5%임. 고령가구의 물가지수는 ▶2019년 0.8%, ▶2020년 0.1%, ▶2021년 2.1%, ▶2022년 3.1%, ▶2023년 2.8%로, 201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전체 가구보다 줄곧 높았음

- 2023년 통계는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2022년 통계를 살펴보면 고령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거주, 의료보전, 식료품 등에서 높은 물가를 감당하고 있음
 - 2022년 7대 기본 유형 통계를 보면 ▶식료품은 전체 가구 24.6%, 고령가구 26.5%, ▶의류는 전체 가구 5.2%, 고령가구 3.9%, ▶거주는 전체 가구 23.5%, 고령가구 33.7%, ▶교통 및 통신은 전체 가구 13.5%, 고령가구 8.9%, ▶의료보전은 전체 가구 4.7%, 고령가구 7.4%, ▶교양오락은 전체 가구 11.9%, 고령가구 5.9%, ▶기타는 전체 가구 16.3%, 고령가구 13.6%
 - 주목할 점은 거주에서 고령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높은 비용을 치르는데, 대만 언론은 혼자 사는 고령가구가 자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높은 주거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 또한 식료품에서 고령가구가 전체 가구보다 높은 비용을 내고 있다는 현실도 드러남

<https://money.udn.com/money/story/5616/7688926>

<https://tw.news.yahoo.com/退休族對物價壓力感受大-高齡家庭cpi漲幅連五年高於全體家庭-035306414.html>

https://www.dgbas.gov.tw/News_Content.aspx?n=3602&s=232877

<https://pop-proj.ndc.gov.tw/News.aspx?n=3&sms=10347>

파리시의 대기질 개선 정책

프랑스 파리시 / 환경·안전

파리시의 대기오염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임. 게다가 2024년 유럽연합에서 대기오염 규제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 대기오염 방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 현재 유해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의 시내 진입을 막고 주민의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 중. 2025년 디젤차량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려는 계획에 앞서 대형 SUV의 주차비를 인상하여 선제적으로 디젤차량의 시내 진입을 줄이고자 함

사업 배경

- 1990년대 이후 파리시의 공기 질은 점차 개선되는 중이나 WHO(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
- 2019년 파리시는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NO₂)의 EU 규제기준 위반 경고를 받았고 2022년에도 미세먼지(PM₁₀)에 대한 위반 경고를 받음
- 2024년 유럽연합의 대기오염물질 규제기준을 검토하여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 환경보호협회들이 파리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고소. 참사원(le Conseil l'état)은 2021년과 2022년 세 번에 걸쳐 천만 유로에 이르는 벌금을 몰도록 했고, 다시 2023년 11월 파리시와 리옹시에 천만 유로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함
- 파리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규제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대기오염 차량의 시내 진입 제한을 확대하고 대형차량의 주차비를 인상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치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거나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₁₀), 초미세먼지(PM_{2.5})의 수치는 WHO 권장기준보다 높은 수준임
- 오존(O₃)의 경우 햇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유해물질로 연간 평균 오염도는 높지 않으나 매년 증가 추세이며 여름철에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향을 보임

[표 1] 파리시 대기오염도

(단위: $\mu\text{g}/\text{m}^3$)

	2015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EU 규제기준	WHO 권장기준
HO ₂	66	64	63	60	56	47	41	36	40	10
PM ₁₀	33	31	31	30	29	27	25	24	20	10
PM _{2.5}	16	14	14	14	14	12	12	11	25	5
O ₃	38	37	38	40	43	47	46	51	120	60

주) 연평균치로 HO₂와 PM₁₀은 파리 시내 측정치이고, PM_{2.5}는 파리 중심부 측정치임

(출처: <https://parisdata.opendatasoft.com/explore/dataset/qualite-de-lair-concentration-moyenne-no2-pm25-pm10-o3-a-partir-de-2015/dataviz> 의 자료를 발췌 정리함)

-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파리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날에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있음. 이를 위해 주거지역의 공공주차장(노상)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공유자전거(벨리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거주지에 사전 등록한 차량에 한함
 - 주차비 사전 납부하면 해당일만큼 무료 연장 주차 가능
- 대기오염도가 높은 날은 최대 허용 시속에서 20km/h씩 감속하도록 조치 (예 90km/h → 70km/h)
- 파리 시내 대기오염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
 - EU 내 250여 곳에서 이미 시행하는 도시 중심부 차량 진입 제한 제도를 도입
 - 프랑스는 배기가스 저감 지역(Zone à faible émissions)을 정해 공해 배출이 심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
 - 파리는 2017년부터 평일 주간에 시내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오염 정도를 구분하는 크리테흐(Crit'Air)라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
 - 2023년에는 크리테흐 5와 크리테흐 4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간에 파리시 진입을 제한하며 파리 주변 외곽도로인 A86에도 진입을 제한
 - 2025년에는 크리테흐 3에 해당하는 차량(디젤차량)도 제한 예정이며 2030년은 전기차만 진입을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파리는 최근 급증한 SUV 차량이 교통안전 및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파리 시내에 SUV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주차비 인상을 제안
 - 지난 10년간 파리시 내 주차 공간은 계속적 감소 추세나 대형 SUV 때문에 주민의 불편 가중(사고 시 어린이 노약자가 2배 이상 치명적)

- 파리지 방문 SUV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많은 주차 비용을 지불하는 안을 향후 주민 투표로 결정할 예정
- 파리지 방문 차량에 해당하며 파리 시내 거주민 또는 장애인, 직업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

시사점

- 도심 내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차량 사용을 자제하는 것과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시내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 중
- 차량보다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히달고 시장의 생각이 반영된 정책
- 히달고 시장의 교통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 주민 투표제를 활용
- 도시 외곽에 거주하며 유해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 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사람들의 파리 접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도 있음
- 2025년에 디젤 자동차 진입 제한을 과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https://parisdata.opendatasoft.com/explore/dataset/qualite-de-lair-concentration-moyenne-no2-pm25-pm10-o3-a-partir-de-2015/dataviz/>

<https://respire-asso.org/pollution-de-lair-dans-les-ecoles/>

<https://www.airparif.fr/actualite/2023/lair-est-deux-fois-plus-pollue-aux-particules-ultrafines-pres-du-traffic-routier>

<https://www.paris.fr/pages/a-la-recyclerie-sportive-on-s-equipe-sans-se-ruiner-23644>

<https://www.conseil-etat.fr/actualites/pollution-de-l-air-le-conseil-d-etat-condamne-l-etat-a-payer-deux-astreintes-de-5-millions-d-euros>

<https://www.paris.fr/pages/etat-des-lieux-de-la-qualite-de-l-air-a-paris-7101#la-mesure-de-la-qualite-de-l-air-aux-abords-des-ecoles-et-des-creches>

<https://www.paris.fr/pages/mesures-prises-en-cas-de-pic-de-pollution-2720>

<https://www.paris.fr/pages/plus-ou-moins-de-suv-les-parisiens-et-parisiennes-sont-invites-a-voter-le-4-fevrier-25381>

정연주 통신원, yonjoo1004@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69호

발행인 오균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4년 2월 26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이 보고서의 내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